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예배

의심하며 두드려도,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2026.3.15.

사도행전 12:12~16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 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오늘은 '의심하며 두드려도,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따라 매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 설교하는 이유는, 말씀이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다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인 삶이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여다 본다는 점이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그 반복된 말씀 앞에서 '그거 아는 이야기인데' 혹은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 같은 반응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해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씀, 신선한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다 압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듣지 못한다는 것 뿐이예요. 우리 삶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똑같은 말씀이 들릴 때 성숙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실수는 재수 없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고 변해야 할 일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복되어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서야 합니다. 이미 아는 말씀일수록 새롭게 들어야 하고요. 이미 들

있던 말씀이라면 더욱 길을 멈추고 서서 소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완벽한 믿음이라는 무거운 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해져 보자고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100% 완벽하게 응답을 확신하십니까? 단 1%의 의심도 없이, 마음에 한 점의 먹구름도 없이 기도하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늘 의심이 꼬리를 물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무너진 재정과 건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정말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정말 내 남편이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막막한 재정의 문이 열릴까?' 그리고 우리는 곧장 자책합니다. "아,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의심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응답받지 못하는 건 다 내 탓이야." 우리는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짓눌려, 결국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마치 동전을 넣어야 음 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완벽한 믿음'이라는 불순물 없는 동전을 넣어야만 '기적'이 툭 떨어질 것 같이 느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알팍한 공식을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절 히 기도했지만, 막상 응답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사건을 통해, 기도의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헤롯 왕이 사도 야고 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립바 1세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헤롯이 아닙니다. 이 에 대해서는 지난 화요일 묵상에서 다루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일로 유대인들이 열광하자, 내친김에 베드로까지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도 야고 보처럼 죽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밤을 새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5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러는 사이, 감옥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하던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쿵쿵 두드립니다. 마가의 집에는 로다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녀가 누가 왔나 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틀림없는 베드로 사도의 음성입니다. 아이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어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님이 대문 밖에서 계십니다!"

이때,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며 달려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로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살려 달라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살아 문을 두드리는데, 정작 기도한 당사자들은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리가 없다. 차라리 베드로의 수호천사겠지."라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기적을 구하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는,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왜 안 하던 짓을 해?"

응답을 구하면서도, 정작 응답이 오면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이들의 기도가 영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를 잃은 상황에서 베드로까지 잃는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상력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구멍 운동을 통해 풀려나거나, 형 집행이 미뤄지기를 바랐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쇠사슬을 끊고, 열 여섯 명의 파수꾼을 잠재우고,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 베드로를 이 다락방 문 앞까지 배달해 주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의 상자 안에 가두어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일

하심의 크기와 스케일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연약한 기도였습니다.

※알량한 완벽주의의 함정을 깨뜨리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처음 떠오른 주제가 바로 이 상상력의 한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읽는 동안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주제를 던져 주셨습니다. 완벽주의의 함정이었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 없는 기도를 보며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믿고 기도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응답을 믿지 못할 만큼 연약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전한 100%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풀려나 그들의 눈 앞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도 없이 기도한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어떻게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던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응답이 결코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의심의 유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두드림'에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주 지독하고 '알량한 완벽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완전해야 하고, 100% 순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거나, 내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어차피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는데 기도해 봐야 무슨 소용이야?"라며 스스로 포기해 버리죠. 말씀 묵상(QT)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묵상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차피 며칠 하다가 말 텐데, 하다 말 바에는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지."라는 알량한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나의 나태함과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도전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핑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 될 것을 미리 계산하고 시도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시도한 사람, 두드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애초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가능성 자체가 제로입니다.

※기적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두드림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온전한 믿음', '완벽한 상태'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의심의 바람이 몰아쳐도,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얼마나 쉽게 의심하는지, 얼마나 냄비처럼 빨리 식어버리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흔들리는 믿음 그대로, 오늘 또다시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 또 넘어질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옷자락을 붙잡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눈물로 엎드리는 그 멈추지 않는 두드림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감옥 문을 부수어 주십니다. 본문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응답이 왔을 때 "네가 미쳤다"며 믿지 못할 만큼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의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기적을 끌어당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안의 그 알량한 완벽주의를 산산조각 내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내 기도는 쓸데없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완벽할 때만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기도하십시오. 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두드리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믿어지든지 의심이 가든지,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도, 오늘 또다시 시작하는 그 투박한 발걸음을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보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죄문이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재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내 믿음의 크기를 묵상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닫힌 문을 두드리십시오. 멈추지 않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